

# “제1 의제는 4대강 · 봉은사”

##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의욕적으로 활동 준비

6월 8일 출범한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이 위원장에 호선됐다. 도법 스님은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쟁위원회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화쟁 사상은 신라 원효 스님의 중심사상으로 여러 대립적인 이권을 조화시키려는 불교사상 또는 교리적 쟁론의 조화를 뜻한다.

도법 스님은 “화쟁 사상은 우리 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이라며 “(화쟁사상 같은) 위대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한 점에 늘 죄송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늦게나마 자승 총무원장스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원효 스님 사상으로 시대문제를 풀겠다고 해 화쟁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종단 현실 외면할 수 없다

도법 스님은 그동안 수차례 “조계종단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제도권 밖에서 불교적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스님은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던 조계종단 기구의 위원장 소임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조계종단 구성원으로 사상·육체가 이 집단에서 형성되고 성장해 왔다. 어렵다고 해서 (종단을) 배척할 수 없었고,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희망은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데 총무원장소장은 종단 교육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도 참여했다. 또 평소 적을 둔 것이다. 평소 싸움을 싫어해 (정쟁 등을) 피해 다녔는데 화쟁위원회는 싸움을 말리는 일이고, 권력과 이익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자리여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 #4대강 · 봉은사 문제 해법 제시

화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현안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회갈등, 종단 현안인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따른 갈등을 첫 의제로 선정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사업시행과 중단을



요구하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간극이 크다. 봉은사 사건도 직영전환을 두고 총무원과 봉은사의 대립 또한 만만치 않다.

도법 스님은 “화쟁은 연기적 세계관과 중도적 사고방식을 갖고 현장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는 현상이론이다. 4대강 관련 갈등에서 개발과 보존 논리의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봉은사 직영전환 문제도 각 주장의 장 · 단점을 살펴 양 측 주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고 해결점을 도출하는 것이 화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화쟁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 자문기구이지만 대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정부 · 국회 ·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지를 밝히는 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법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스님은 화쟁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을 중무 ·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화쟁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도법 스님은 “간담회 전 총무원장스님에게 봉은사건과 관련해 직영전환 개시의 유보와 관련된 자 중지를 요청해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면서 “총무원과 봉은사 양 측의 화쟁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적 견지와 큰 틀을 갖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토론회때 명진 스님

이 모두 발언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봉은사 사건의 해법이 담겨 있다”면서 “봉은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은 한국불교를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 #화쟁위원회 화쟁 문제 없다

화쟁위원회 구성을 두고 일각에서 “좌우 성향이 제 각각인 위원들이 의견 합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어떤 사안이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 이유를 “화쟁위가 권력 ·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상호간의 의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쟁위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해답을 도출하고 조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 임시위원회를 통해 사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활용해 효율적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가 제시하는 대안이 근본적이지 않아도 그 안은 화쟁의 사유로 사안에 접근해 서로의 상처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효과적 ·

효율적 결과일 것이다. 상호간 신뢰하는 풍토와 조건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 #총무원장스님 긍정 평가 돼야

도법 스님은 “봉은사건과 관련해 총무원장 스님을 긍정적으로 바라 봐야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은 주어진 권력임에도 또, (원로회의, 중앙총회 등) 종단 내 여러기구가 이구동성으로 봉은사 직영전환 시행을 요구하

는 상황에서도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인내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스님은 간담회 직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화쟁위원회 사무실과 전문 및 실무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화쟁위원회 활동을 준비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 가치로 사회갈등 해소에 앞장”

부위원장 원택 스님

“화쟁위원회를 통해 종도와 사회에 보탬 되는 성과를 이루겠다.”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쟁사상을 통한 대중공의 실현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 수종단인 조계종단이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자승 총무원장스님이 화쟁위원회를 구성해 불교적 가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의지를 밝힌만큼 화쟁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위원장 도법 스님이 4년간 탁발 순례를 펼치며 사회 각 계각층서 소통해왔던 역량을 도와 종단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화쟁위원회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만연한 반목의 심성 화쟁으로 소통”

부위원장 성태용 교수

“화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반목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 화쟁이라는 태도의 확산에 힘쓰겠다.”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쟁사상의 사회적 확산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고착된 남북분단 등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부정하는 심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면서 “화쟁위원회가 화쟁사상을 통한 사회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용 교수는 “화쟁은 적당한 절충안이 아니다. 양비양시(兩非兩是)

를 초월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대립된 쌍방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공동이상을 비교해 가는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화쟁위원회는 서로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편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화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 문수 스님 뜻 이어 릴레이 기도

### 불교연대 6월 10일~7월 18일 추모기간 선포



6·2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조계사에서 개최된 문수 스님 추모제에 동참한 야당 정치인들이 4대강 사업 즉각 반대를 외치고 있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에 이어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릴레이 기도가 서울 한강선원에서 49일간 진행된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6월 10일~7월 18일 문수 스님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한강선원에서 24시간 추모기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스님의 뜻을 대중들에게 전달해 스님의 바람이 보다 광범위하게 알려지도록 하겠다. 4대강 공사 등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범문 스님은 “문수 스님의 유언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 참회와 성찰을 위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 하겠다”며 불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수경 스님은 “4대강 저지, 부정부

패 척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도를 하다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대 종교 지도자 및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기간에는 매일 저녁 7~8시 참회기도 108배, 4대 종단 · 환경 운동가 등을 초청 ‘생명평화를 위한 길’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진행한다. 매주 주말에는 천도재, 108배 참회 정진 수행을 진행한다. 7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막을 지내고, 서울 광장에서 국민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5일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가 조계사에서 불행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중앙승가대총동문회, 종교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주관한 행사에서 5000여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 반대 등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마음을 같이했다.

이상연 기자

## 천안함 사태로 교계 대북 사업 제동

### 민추분 · 평불협 등 모든 행사 보류 결정

천안함 사태이후 불교계 통일관련단체가 대북 사업 대부분을 중단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불교계 통일관련단체들은 기념사업 등 대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됐다.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본부장 명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등은 6월 8일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관련 회의에서 모

든 행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평화재단이 10일 개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8·15 광복절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5 경축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대북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접촉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 젊은 날의 깨달음

##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



급상승 베스트 셀러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신규진입 2위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 3위  
영풍문고 오늘의 도서 선정



##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주인공

###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 독립 전문서평단의 뜨거운 찬사!!!

친필인물적일 수도 있는 구도자의 책들에 색다른 바람을 불어일시킬 수 있는 책이다. [말리민: 러브렛 ★★★★★]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책이다. 하버드에 가기 위한 열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알찬 얘기들로 가득차 있어서 오랜만에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인터파크: 너티나사랑으로 ★★★★★]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읽고도 또 읽고싶은,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곱씹게 되는 책을 읽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quartz55 ★★★★★]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케 하며 앞으로의 나를 이끌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 역할과도 같은 그런 글들이었다. [에스24: parkah ★★★★★]

클리어마인드 전화\_02-2198-5151 정가 12,000원 저자 해민 스님

\*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해민스님